

# 광산구 민선 8기 첫 조직개편...혁신 초점

## 광주형 일자리·명품 30리길 역점 외국인주민·통합돌봄 부서 신설

광주 광산구가 민선 8기 핵심 정책과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대적 조직개편에 나섰다. 조직의 방향을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의 심도는 '시민 삶에 더 깊이 스며 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명품 30리길 조성 등 역점 시책과 더불어 외국인주민, 반려동물, 통합돌봄 등 시대흐름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부서가 대거 신설된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민선 8기 조직개편을 위한 '광주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광산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핵심 현안을 전담할 조직과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팀의 신설이 가장 눈에 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달 풍영체육시설단지에서 열린 제31회 광산구민의날 기념식에서 '광산에 혁신의 불씨를 지피다'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명품길추진단'이다.

'명품길추진단'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명품 30리길 조성을 비롯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부구청장 직속 조직이다.

분산돼 있는 길 관련 업무를 통합해 어등산, 황룡강, 장복습지 등 풍부한 광산의 자원과 연계한 생활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한 팀을 꾸렸다.

걷고 싶은 길 조성을 책임지는 '걷고 싶은 길조성팀', 녹색교통 수단으로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전거 전담팀', 도심 녹지 확충을 맡게 될 '푸른길조성팀'도 구성했다.

박 구청장이 내건 광주형 일자리 창출 시연 2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경제, 일자리 부서의 재편도 이뤄진다. 기업경제과를 '지속성장 일자리과'로, 일자리정책과는 '시민경제과'로, 미래산업과는 '산업혁신과'로 변경하고 경제 위기 속 기업과 노동자, 골목·시민경제, 신산업 성장 등을 지원할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속성장 일자리과'는 ▲일자리정책 ▲기업투자지원 ▲지속성장특구조성 ▲노동지원으로

팀을 세분화해 박 청장이 강조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의 콘트론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조성을 비롯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노동자 권익지원 등 기업과 노동의 상생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신설되는 외국인주민과도 관심이 쏠린다.

광산구는 광주에 사는 외국인 중 54%(2만2132명)가 거주하는 대표 다문화도시로 대한민국 유일 고려인마을도 광산구에 있다. 새롭게 설치되는 '외국인주민과'는 외국인주민정책, 외국인주민지원, 고려인마을활성화 등 3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과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참여, 선주민과의 상생, 화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역사테마지구 조성 등을 통해 고려인마을을 광주 대표 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사업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또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별 복지 정책의 집적력, 효과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이 밖에도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생태과는 '기후환경과'로 변경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반려동물정책팀도 신설한다. 먹거리, 중대재해예방, 공원관리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업무를 전담할 팀도 신설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는 현 2실 2관 38과 1단 2센터 173팀, 21개 동 55팀에서 2실 1관 39과 1단 2센터 176팀, 21개 동 59팀으로 조정된다.

광산구는 시행규칙 개정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시작에 맞춰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 8기의 핵심 가치인 상생과 혁신을 조직에 녹여내고, 이를 통해 시민 삶 깊이 스며드는 구정 체계를 세우겠다"며 "시민을 이롭게 할 새로운 광산을 만들기 위한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음악치료' 운영...보호아동 마음건강 지원



광주 광산구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이 음악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심리 발달을 위해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민·관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 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정서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스트레스 해소, 올바른 자기표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일반적인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가 약물치료보다 더 효과적으로 결집된 정서를 채워주면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한 끝에 음악치료를 시도하기로 했다. 광산구의 설명이다. 다양한 심리치료가 활용되고 있는 음악치료는 우울, 주의력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정서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표

현하는 과정이 기본 전환과 불안 및 우울 대처, 즐거움 증가로 이어져 자존감 향상, 내적 갈등 감소,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 등에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추천을 토대로 광산구는 '음악으로 듣는 너의 이야기'라는 이름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전문 음악치료사를 섭외, 현재 매주 1회 음악치료사가 아동양육시설을 찾아 ADHD(주의결핍과잉행동장애), 틱, 우울, 분노조절, 지적장애 등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확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해 온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이번 음악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반, 통기타, 우쿨렐레, 실로폰, 칼림바, 터치벨, 드럼 등 14종의 음악장비를 지원했다.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내년 9월까지 이어진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더불어樂노인복지관'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장려상



광산구 주민들이 더불어樂노인복지관 운영 차매예방프로그램 '두뇌튼튼 기억발전소'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더불어樂(락)노인복지관은 "한국 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한 2022년 제5회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노인복지관 391개소 중 41개소가 참여해 45개 프로그램이 접수됐다.

더불어樂복지관은 차매예방프로그램 '두뇌튼튼 기억발전소'로 인지활동서비스 프로그램 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2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두뇌튼튼 기억발전소'는 현실인식 연습, 오감 자극, 원예치료 등 다양한 기능 강화훈련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퇴화를 예방하고, 잔존능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됐다.

김용덕 더불어樂노인복지관 관장은 "어르신들의 적극성과 연계기관의 헌신으로 수상을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증진과 수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시급

### 도서관서 5년째 더부살이...커뮤니티 시설 전무·주민들도 불편

광주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민들 사이에서 비좁고 협소한 탓에 주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기능을 상실했다는 불만 등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어룡동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송정동에 있는 '광산구민회관' 건물을 사용했으나, 2016년 6월 이야기꽃도서관이 신축되면서부터 해당 건물 1층을 5년째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별도 건물 청사 없이 도서관 건물에 더부살이로 입주해 있다 보니 겨우 직원들만 근무할 정도의 협소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커뮤니티 시

설 등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전무하고, 휴게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조차도 없는 탓에 300여m 가량 떨어져 있는 인근 아파트 상가 건물을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사용하다보니,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민들 사이에선 어룡동의 경우 선운 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 12월이면 1만5000여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인구 5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은 "도시팽창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민원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청사가 비좁아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주민자치기능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광산구 의원들은 최근 열린 제 274회 광산구의회 구정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룡동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 부지를 2019년 신축 청사 부지로 매입했으며, 현재 신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